

# Vending

서울시청 **권순옥** 가공식품안전팀장



## 커피자판기 위생성 향상, 이제 서울시에 맡겨 주세요

서울시가 커피자판기 위생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서울형 안심자판기'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 사업을 통해 커피자판기에서 판매되는 커피/국내산차 등의 원재료 유통기한·보충일자·원산지(제조국)등 내역까지 표시하게 하여, 소비자들에게 신뢰성을 부여하려고 있다. 서울시가 왜 커피자판기 위생에 뜨거운 관심을 갖고 서울형 안심자판기 사업을 추진하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이 사업이 의욕만큼 성공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이런 궁금증을 해소하려고 사업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서울시청 권순옥 가공식품안전팀장을 만나 봤다는 이유로 점검의 우선순위에 밀려 관리가 부실하다는 점도 이유로 작용했습니다.

“안심자판기 사업 참여하게 되면 운영자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소비자들에게 이 자판기를 믿고 사용할 수 있다는 신뢰를 줌으로써 자판기 이용을 확대하고, 매출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왜 서울시가 식품자판기를 대상으로 서울형 안심자판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나요. 그 동기가 궁금합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가 일반인들의 상상력을 시정에 반영하는 ‘천만상상 오아시스’의 한 제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09년 4월 경희대학교 식품영양학과 한 학생이 ‘자판기에서 판매되고 있는 식품의 교체시기와 원산지 등을 눈에 띄는 곳에 크게 표시하도록 강제성을 두자’고 제안했던 것이죠. 서울시에서도 작년의 경우 자판기 멜라민 커피 파동으로 소비자의 불안심리가 크게 확산되었던 적이 있었음에 따라 이 제도의 실시 필요성이 높다는 판단 하에 시정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또 자동판매기 특성상 현장 관리자 없이 운영됨으로 위생문제가 자주 대두 된다는 점. 또 타 식품 안전 업무에 비해 비교적 단순하다는 이유로 점검의 우선순위에 밀려 관리가 부실하다는 점도 이유로 작용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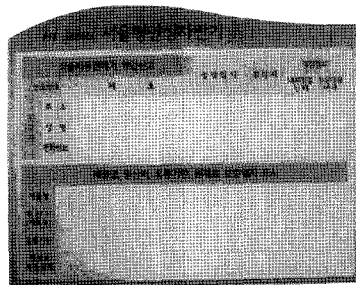
**안심자판기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서울시가 안심자판기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은 자판기 위생향상 및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입니다. 안심자판기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들에게

서울시에서 제작한 안심자판기 점검표시판을 배 포함합니다. 이 점검표시판은 매일 자판기의 위생상태 및 고장여부를 점검하고 그 내용을 표시하도록 한 기존의 점검표에, 원재료의 유통기한, 보충일자, 원산지(제조국) 등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자판기 내용물과 위생에 대해 믿고 사용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안심자판기가 왜 중요하고 자판기 업계가 동참을 해야 하나요.**

안심자판기 사업 참여하게 되면 운영자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소비자들에게 이 자판기를 믿고 사용할 수 있다는 신뢰를 줌으로써 자판기 이용을 확대하고, 매출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현재 안심자판기 관련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서울시는 ‘서울형 안심자판기 만들기 사업’에 참여한 자판기에 서울시에서 직접 제작한 『서울형 안심자판기 점검표시판』을 배부하여 부착토록 하고, 영업주로 하여금 표시사항을 이행하게 하고 있습니다. 대상 자판기는 서울시에 설치된 14,000

여대 중 대학교, 지하철역, 종합병원,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내에 설치된 자판기들입니다. 이들 자판기들을 대상으로 사전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시설기준 및 위생관리 상태가 양호한 자판기 총 2,423대를 선정하였습니다. 이 중에는 영업주 스스로 사업에 참여한 자판기 수가 527대에 이릅니다. 안심자판기 점검표시판 부착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자 '자판기를 믿고 사용할 수 있어 좋다'며 환영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반면 '이 사업이 일회성 이벤트 식으로 끝나지 않겠느냐'는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서울형 안심자판기 사업을 준비하시면서 애로 점도 많았을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점검표시판에 추가로 표시해야 하는 사항들이 의무가 아니라 협조사항이라는 점이 애로 점을 작용했습니다. 운영자들이 의무사항들을 안 지키면 강제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실패요인으로 작용하는 게 아닌가하는 우려를 가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또 서울시 마크에 걸맞게 자동판매기가 제기능을 할 수 있을까하는 걱정도 했습니다. 치밀한 준비로 이런 우려와 걱정들을 불식시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내용물 신뢰성 위주의 안심자판기 판넬 부착과는 별도로 명실공히 최고의 위생자판기에 대해 부착하는 인증제도도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지요.**

최고 위생자판기에 부여하는 인증제도는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위탁업체를 통해 성능기준 마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검토 보완해야 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아마 2010년 중에는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서울시의 안심자판기 추진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기도 합니다. 왜 서울시가 안심자판기에 사업에 대해 그렇게 적극성을 보이는 것인가요?**

더 이상 식품자판기의 위생문제를 좌시할 수 없는 시점이라고 봤습니다. 사실 지금까지의 위생점검은 실질적인 점검이 아니라 형식적인 점검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지난해 7월 수거 점검을 해보니 일부 자판기에서 식중독균인 바실러스 세레우스 균이 검출되는 등 위생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서울시가 식품자판기 위생성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죠.

**참여 업체를 늘리기 위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중요한데 이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당장 업체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기는 힘듭니다. 2010년에 서울시장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가 끝나고 나서나 인센티브를 줄 수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어떻게 참여 업체들에게 인센티브를 줄 것인가' 방안을 모색하는 단계입니다. 자판기 운영을 하는데 있어 큰 도움이 되는 소모품들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호스, 종이컵 같은 품목입니다. 그러나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제조업체는 미관보다는 운영자들이 위생적으로 쉽게 관리할 수 있는 자판기를 만들어 줬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한번에 빠르고 용이하게 청소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위생자판기 같은 거 말이죠. 위생을 업그레이드한 자판기가 나올수록 자판기 위생에 대한 소비자 인식들도 개선될 수 있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자판기 위생의 혁신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어떠한 과제들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보**



**시는지요.**

자판기 운영자들의 위생에 관한 의식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자판기가 깨끗한지, 안 깨끗한지 객관적 기준이 없

다보니 점검자와 운영자의 입장이 다른 경우가 많았습니다. 점검자 입장에서 보면 문제가 있는데 운영자는 없다고 우기는 식이죠.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남의 것에 비하면 조금 낫지 않느냐”고 주장합니다. 위생은 결코 상대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보더라도 분명하고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운영자들의 위생에 대한 의식 고취가 하루 빨리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끝으로 자판기 시장의 발전을 위한 제안을 하실 것이 있으신지요. 기타 자동판매기 업계에 당부하시도 싶은 말씀도 있으면 덧붙여 주세요.**

이제 소비자들이 불신을 갖지 않고 믿고 먹을 수 있는 자판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2010년은 특히 자판기에 대한 많은 위생 검사 및 점검을 통해 마스크 고발이 이루어졌던 게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조업체는 미관보다는 운영자들이 위생적으로 쉽게 관리할 수 있는 자판기를 만들어 줬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한번에 빠르고 용이하게 청소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위생자판기 같은 거 말이죠. 위생을 업그레이드한 자판기가 나올수록 자판기 위생에 대한 소비자 인식들도 개선될 수 있을 것입니다.